

# 계분처리가 채란양계 성패 좌우한다

□ 취재/김용화 과장

**채**란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란을 생산하여 경영수지를 높이는 데 있다. 경영수지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계란값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생산비를 낮추어 경영수지의 폭을 넓히는 일일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이미 수입개방기 류상으로 볼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출하되는 계란가격을 생산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였으나 값싼 수입계란이 국내시장에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채란양계 산업의 경영수지를 높이는 길은 소비자가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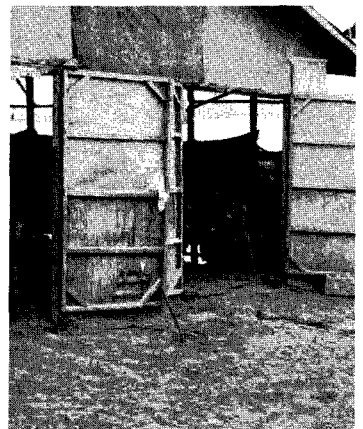
기점으로 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두 과정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수입개방이 전제조건이 아니라도 국내생산자간에 경쟁을 고려한다면 점차 계란 1개당 마진이 1원을 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30여년전에는 계사에서 배출되는 계분이 오늘날 이렇게 두통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견은 하지 못했던게 사실이었다. 이를 처리하는데 투입하는 비용 또한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구라파에서는 동물보호론자들이 닭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은 확보해 줘야 한다고 동물학대론을 앞세워 양계업자들을

야몰차게 몰아부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나라도 문화수준이 지금 보다 더 높아지면 그와 같은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시설수준이 낙후되어도 계분에 대한 공해지적이 없었던 때는 계란없이 경영수지의 지표였다.



△ 경영규모의 증가와 아울러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생계분은 임의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채란양계 산업에서 관심밖의 일로만 여겨지던 계분처리 시설을 살펴보면 양계산업에 대한 변모를 의외로 많이 읽을 수가 있다.

주곡생산에 자연퇴비를 많이 이용했던 때에는 계분을 포함한 축분은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통한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자연퇴비 사용의 감소와 아울러 축분은 이용이 제한되어 활용보다는 버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 양계업이 사육수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채란양계인들을 미궁으로 빠뜨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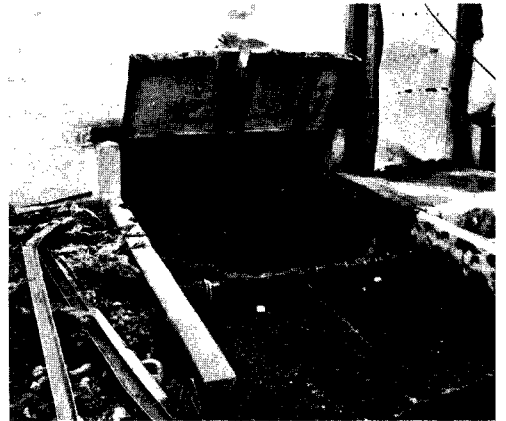
계분은 증가하고 사용처는 줄어들고 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 생분을 계사주변에 야적시키는 방향으로 계분처리를 그런대로 해결해 왔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몰고온 산업구조 변화는 채란양계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계속되는 공업화 추세로 이농현상이 심화되자 양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면서 계사의 기계화가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육규모의 증대는 경영수지에 직결되어 상당히 증가된 사육규모로 인해 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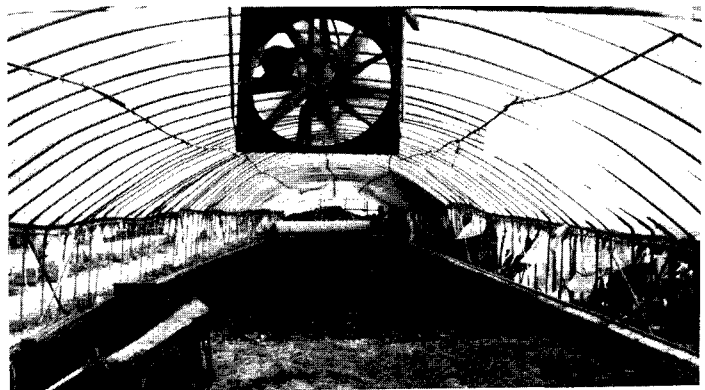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모델설정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계분처리시설은 많은 우여곡절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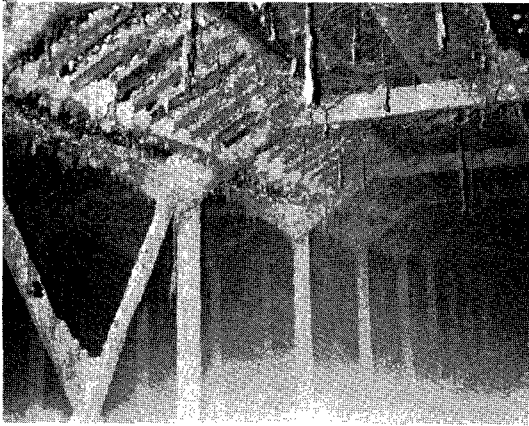
해외정보에 남보다 밝은 몇몇이



△ 케이지 밑에 설치한 스크레퍼

외국의 계분처리 시설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 적용시켜려 하였으나 여건이 달라 4계절을 동일하게 가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산자 또한 경험부족으로 막대한 계분처리 시설을 하여도 가동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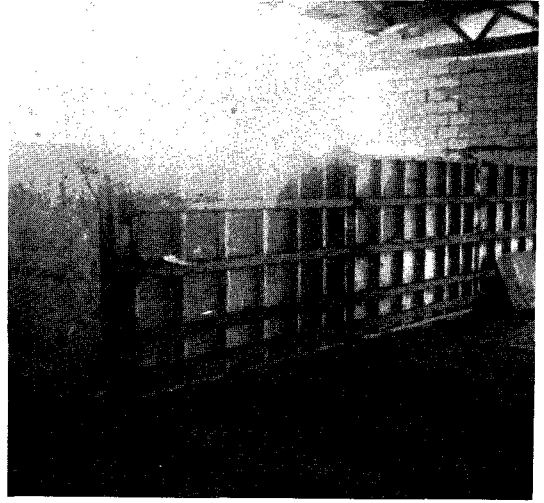




△ 고상식계사에서에서의 계분처리

떨어져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설치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경험만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예를 들어 계사내에 스크레퍼를 설치하면 계분공해로부터 벗어날 줄 알고 설치하였으나, 원래 스크레퍼는 계분을 제거시키는 인력대용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처음부터 계분을 공해물질로부터 해결해주는 시설로 믿었던 게 80년대 중반에 계분처리 시설을 주춤하게 했던 요인으로 지적



발효조하부에 송풍구를 설치, 동절기에도 계분을 발효시키는 모습

할 수 있다.

그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대형 계분건조기다. 태양열을 이용한 일명 선드라이어였다. 이 시설도 처음에는 생산되는 계분량

이나, 연변으로 인한 반죽상태의 계분생산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발효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설비 방법이 고안되면서 많이 보급되었다.



△ 분뇨차를 이용 생계분을 분뇨처리장이다 처분하는 모습



△ 발효건조된 계분이 포대에 담겨 상품화 되고있다.



△ 한도엔지니어링에서 보급한 HMI-1300형 스키로우더가 계분작업은 물론 계사정비 작업도 하고 있는 모습

계분발효건조 시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분은 유기농업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심한 동절기에 이용에 제한이 있고 발효조의 길이가 최소 60m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중규모이하 농장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산업 폐기물이 자연을 훼손하고 급기야 상수도원까지 오염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채란양계장에서는 1,000㎡ 당 20㎡이상의 계분저장창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로인해 채란양계산업에는 계

사관리와 계분처리 과정이 동일시 될만큼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발효계분이 생산되자 유기농업에 재활용되면서 계분처리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으로 쳐내던 계분을 스크레퍼를 이용 계사에서 꺼내, 다시 각 계사에서 나온 계분을 스크레퍼로 한곳에 모아 발효건조장으로 보내거나, 왕겨 및 톱밥을 섞어 인근 사용자에게 생분으로 처분하는데 규모가 큰 농장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계분량이 몇톤씩되자 최근에는 건설장비로만 여겨왔던 로우더를 구입 계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천만원대에 달하는 미니로우더를 구입하여 계분처리는 물론

계사 주위의 정비작업까지 하고 있는 채란양계인의 심정은 수입개방으로 채란양계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답답할 뿐이다.

앞으로 채란양계산업은 현재의 시점이 양계업을 하기가 더 쉬웠던 때라고 차후에 말할런지도 모른다. 마진폭은 줄어들고, 환경공해에 대한 각종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계분을 잘 관리하여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장의 입장에 따라 끊임없는 계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는 양만큼 경영주는 이들 기계를 다루는 기초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기종 선택에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